

90.2.23

어떤 졸업식장에서

산업체특별학교 방림여상 졸업식

“자식을 떠나 보내시던 날, 흠뻑 눈물 흘리는 신작로에서 한없이 손을 흔드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답사를 하던 학생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윽고 강당안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졸업생들도, 언니들의 졸업을 축하해주는 재학생들도, 딸의 졸업식을 지켜보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왔을 주름 가득한 농부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1990년 2월 15일.

구로공단에 위치한 방림방직 부설 산업체특별학교 방림여상 졸업식장.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먼지 자욱한 방직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해가며 배운 성과였기에 어느 졸업식장에서 볼 수 있는 눈물보다 훨씬 뜨거운 눈물이었다.

“고마울 뿐이지라. 자식 나서 학교도 못 보낸 죄 많은 부모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소.”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서 딸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 왔다는 장주경(60)씨는 애써 눈가의 물기를 감쌌다.

이날 졸업을 하는 장씨의 딸은 중학을 졸업한 이듬 해에 방림여상에 입학했다고 한다. 집에서 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돼 쉬고 있던 중, 방림방직에 입사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얘기에 열일곱살의 실골 소녀는 서울행 열차에 오른 것이다.

그런 산업체부설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거의 모두의 비슷한 과정이다.

산업체부설학교가 생긴 것은 지난 74년 한일합섬에서 설립한 한일여실고가 최초. 이후 산업체부설학교는 인력수급에 용이하다는 기업주들의 판단으로 급속히 확산돼 현재 43개교에 약 4만 7천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산업체부설학교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훨씬 심한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

학교가 산업체부설학교이고

고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선미도 내년이면 그렇게 바라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슴에 안아볼 수 있었을텐데...

졸업생 이아무개(21)양은 말끝을 흐리며 황망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산업체부설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직이나 자퇴를 강요받는 일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1월 부천 소재 일신전기 부설 대경여성에서는 처우개선을 놓고 준법투쟁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귀향을 종용하고, 말을 듣지 않자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졸업후에도 계속 다닐 거냐구요?... 여기 애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한두 사람 빼놓고는 모두 그만 둘 사람들이예요.”

졸업생 박아무개(22)양은 곧 직장을 그만 둘 거라며, 그러나 다른 곳이 특별히 나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재직중인 한 여교사도 졸업생들은 거의 직장을 떠난다고 말하며, 섬유업계의 특히 열악한 근로조건이 그 이유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강당 밖으로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식당 안의 졸업생들은 모두들 떠날 준비를 갖추었다.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졸업장 한장으로 보상받기엔 너무 안타까워 더 밝은 세계로 가야 했다.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 떠나지만 간다고 달라질 건 무엇?’

졸업식장을 빠져 나온 기자 역시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되뇌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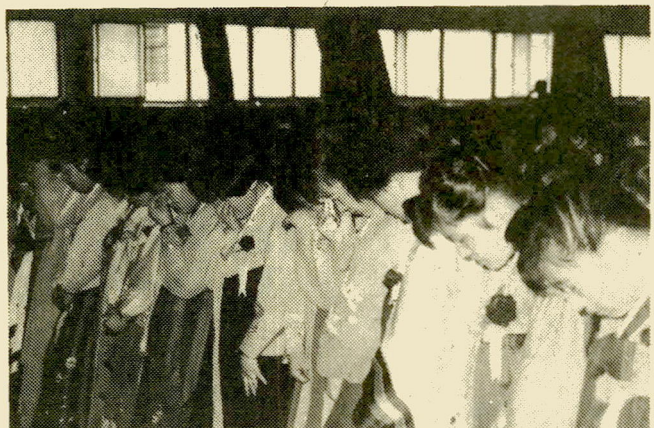
학교 다니기 위해 불만도 참아 졸업과 함께 대부분 회사 떠나

보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학교를 떠나야 하고,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선 불만이 있어도 꼭 참아야만 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16일 이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조선미양의 경우는 엄청난 비극이었다.

기숙사내에서 발생한 분실사고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범인을 가려낸다고 속칭 반지점을 보게 됐고, 그 점에 의해 지목된 조선미양은 사람에게 불려다니며 수모를 당하다 결국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선미한테 뭔가 죄를 지은 느낌이에요. 그 억울한 죽음을 놓



오늘을 위해,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던 지난 3년간의 설움이 북받쳐 오른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졸업장이 과연 '장미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